

정책동향

새해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청사진 제시

과학기술부(장관 채영복)는 이승구 과학기술부 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및 관계부처 1급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별 전략·특화기술개발, 지방의 과학문화 확산 등 6개 부문, 331개 사업에 총 1조 465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3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별 전략·특화기술 개발사업(2548억원), 지역기술혁신거점의 육성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1조 193억원), 지역별 전략·특화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127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별 지역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126억원), 과학문화 확산사업(495억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부는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안을 기획예산처 및 16개 시·도에 통보해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중기청, 통계시스템 개통

중소기업청은 중기관별 각종 통계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제공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통계시스템을 구축, 1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소기업통계 DB부문에는 통계DB검색, 조사보고서, 조사통계 현황, 지역별정보망, 경제통계뉴스 등 6개분야로 통계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DB검색에는 통계청, 중기청 등 중소기업관련 기초통계 자료를 주제별, 조사별로 DB를 구축하고 조사보고서에는 중소기업 관련 각종 조사보고서 및 간행물 등 수록, 조사통계현황에는 각종 중소기업조사통계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주기별, 기관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조사개요를 수록 했으며 지역별 정보망에는 지역통계 DB, 지역동향뉴스 등이, 경제 통계뉴스에는 각종 중소기업관련 통계뉴스 및 정책뉴스를 각각 수록했다.

“100만 불 짜리 PR”

10억이 넘는 스포츠카가 한국에서도 팔릴 수 있을까?
 언론홍보에서 런칭, 기자간담회, 시승식까지-
 Future Communication의
 100만 불 짜리 PR전략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PR전문가집단, Future Communication...
 최고의 Manpower와 노하우로 귀사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 | | | |
|---|---|---|
| <p>폭넓은 인맥을 통한 언론 밀착형 PR Solution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경험과 실전, 그리고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객사의 위기관리를 해 드립니다. -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홍보전략 수립으로 고객의 경쟁우위 확보와 PR효과를 약속 드립니다. | <p>앞선 노하우로 순발력, 생명력있는 PR 실행전략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ategy: 전략이 있는 PR - Skill: 프로정신이 담긴 PR - Synergy: 언론 매체별 특성과 효과를 극대화한 PR - Style: 고객만족을 창출하는 독창적인 PR | <p>철저한 Partnership을 기반으로 최고의 전담팀 구성</p> <p>PR 전문지식과 풍부한 노하우, 완벽한 Teamwork로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귀사의 발전이 곧 Future Communication의 발전이라는 각오로 최고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력투구 하겠습니다.</p> |
|---|---|---|



산업동향

바이오벤처 中 진출 러시

대한바이오링크·미슬바이오텍·캠온 등 바이오벤처 기업들은 최근 중국에 현지법인 또는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중국 정부가 상하이 푸둥지구에 대규모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다국적 제약기업의 연구소를 대거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에서는 천연물 신약의 원료가 되는 다양한 약용식물을 얻을 수 있고 외국 기업을 위한 혜택이 많아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대한바이오링크(대표 고영수)는 미국의 실험동물회사 할란과의 합작법인인 '할란아시아'를 내년 초 국내에 설립하여 중국에 진출할 계획이다.

미슬바이오텍(대표 김종대)은 최근 중국 하얼빈의대 부설 과학기술개발총공사와 공동으로 한국산 다년생 식물 겨우살이를 원료로 하는 항암제 및 면역증강 물질의 신약을 개발하기로 하고 2400만달러에 달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포스트PC '산업주역' 키운다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와 포스트PC산업포럼에 따르면, 산자부와 관련업계는 5~10년 후 우리 경제를 살릴 전략산업의 하나로 포스트PC를 정하고 2004년부터 5년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민관 공동자금을 투입하는 그랜드 프로젝트인 '비전 2020'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내년 1~2월 중 '비전 2020' 청사진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포스트PC산업포럼 이승룡 회장은 "이 프로젝트의 사업명을 가칭 'Broadband Computing Appliance'로 정했다"면서 "디지털오디오방송(DAB)과 같은 20Mbps 이상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멀티미디어를 구현할 포스트PC 컴퓨팅을 위한 기반기술 및 핵심기술 개발이 주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대표적인 예로 포스트PC 단말기에 들어갈 시스템온칩(SoC)·임베디드 운영체제(OS), '접는 디스플레이', '입는 컴퓨터' 등을 들며, 앞으로 5년 이후 우리가 꼭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을 산학연이 함께 개발해 산업경쟁력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것이 프로젝트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뉴스

[중국] 라오닝성 IT기지 '무엇이 강점인가'

중국 라오닝성(遼寧省)이 중국 IT전진기지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라오닝성은 공업기지 구축과 대외 개방이 조기에 실시돼 막강한 경제력과 고급 연구인력 및 다수의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대용량의 동기식 디지털 전송 네트워크가 성내 14개 도시 전역에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가입자가 매년 두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IT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라오닝성의 최대 강점이다.

라오닝성은 60여 고등교육기관과 400여 연구기관 등을 통해 매년 4만여 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다롄·선양·안산 등 지역에 SW파크를 조성하는 등 중국 내 IT교두보로 위상을 굳히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정부 야심찬 청사진 공개

영국 스코틀랜드정부가 에버딘과 던디·글래스고 3개 도시에 세계적인 기술연구센터를 조성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최근 공개했다.

스코틀랜드정부는 에너지·생명과학·통신기술 및 디지털미디어 등 3개 전략분야를 집중육성할 전문기술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코틀랜드 경제개발공사는 향후 10년간 총 4억 5000만파운드(약 7억1109만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프랑스] IT미래 "우리가 책임집니다"

프랑스의 IT업계를 이끌어온 장 마리 메시에 비방디 유니버설 전회장 등 상당수의 CEO들이 사라졌지만 벤처업계의 새로운 스타들이 떠오르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IT경제월간지 카피탈(Capital) 최근호는 지금은 규모가 작지만 미래가 밝은 벤처기업들의 젊은 CEO들을 소개했다.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CEO인 로익 르뤼르(30)는 35세 미만의 유력 기업인만이 참여하는 세계경제포럼에 프랑스기업인으로서 유일하게 초대받았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 전자메일 웹사이트 카라메일의 오리안 가르시아(30), 온라인 비디오제조회사인 DivX의 CEO인 제롬 로타(29), 네타겟(Netarget)의 설립자인 귀욤 뮐트리에르(31)도 무서운 기세로 벤처업계의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동향

KISA개발 생체인식시스템 시험 기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조희갑)이 개발한 '생체인식시스템' 시험기술이 국제표준 규격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KISA는 지난 달 1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ISO/IEC JTC1 SC37(생체인식) 국제표준화 창립총회에서 생체인식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규격(BioAPI) 표준적합성 시험기술 및 개발사례 등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대표로 참석한 KISA 김재성 평가1팀장은 "국내에서 개발한 BioAPI 표준적합성 시험기술은 신규 국제표준과제로 정식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번 생체인식 국제표준화 창립총회에는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17개국 대표 △ISO/IEC JTC1 SC17(IC카드), SC27(정보보호), SC32(데이터관리), SC36(e-Learning) 관계자 △ITU-T/SG17(통신시스템 보안) 관계자 등이 참가해 각국의 표준안을 제안했다.

중기청, 14개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선정

중기청은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과 기업간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14개 '중소기업기술 연구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4개 기술연구회는 지난해 10.28~11.16 동안 접수된 22개 기술연구회 중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기술연구회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 기 결성돼 있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협회가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사무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기업간 기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둘째, 기존의 산학연협력사업을 기업이 주도하도록 하고 셋째,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조합원들의 동의 하에 연구비를 사용하는 별도의 조합 형태를 갖춘 점에 있다.

중소기업기술연구회의 활동기간은 2년이내로 연구 개발 과제 종료시 해산하게 된다.

성공적인 기술사업화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 사업성이 유망한 신규아이템을 찾고 계십니까?
-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고수의 투자를 원하십니까?
- 벤처기업의 인수, 합병을 원하십니까?

한국기술거래소로 오십시오

한국기술거래소가 공신력 있는 평가를 통한 기술/기업거래, 투자 알선으로 여러분의 기술을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VISION

기술사업화의 중심기관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투자자의 이윤 극대화

기술유통시장의 조성과 운영을 통한 기술거래·기업거래 활성화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4층

Tel : (02) 6009-4300 / Fax : (02)6009-4343~4

한국기술거래소는 우수기술의 사업화와 기술기반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산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입니다.